

#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현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송이, 강영성(신화순), 김광호, 김미희, 김외자(류승우), 김재인(이강우), 김정연A(이선분), 김정자, 김종선(박영숙), 김춘화, 김형국(이오순), 박금엽, 박부웅(최귀남), 박순자, 박영애, 박해진, 백근영(윤 속), 석애자, 송형기(김현숙), 신세균(유미란), 심혜원, 유승용(강민주), 유은자(김점태), 윤승한(민옥희), 윤영준(박진숙), 윤예원, 윤조훈, 이상이, 이찬호(김남우), 이창규(곽정순), 이태일(송백현), 이형욱, 이호준(안금자), 임정빈, 전순봉, 정경석(박지순), 정기성(심순옥), 정양학(박은숙), 조목자, 최순재, 최정순, 최정희, 하세련(김기안), 현웅건(이윤옥), 황성연(홍금옥).

## 선교현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영성(신화순), 김경업, 김태수, 박금엽, 박순자, 박춘자, 서정문, 손정아, 송순랑, 신세균, 안금자, 유은자, 윤 속, 윤승한(민옥희), 윤영준, 이미영, 이복현, 이상이, 이소연, 이순애, 이찬호, 이창규(곽정순), 이태일, 이형욱, 임영자, 전순봉, 정기성(심순옥), 최성현(윤정자), 최정희, 하세련, 바늘남전도회.

## 감사현금

이필례, 강봉석(이순철), 김경업(손정아), 김미희, 김병율(이영숙), 김우근(윤지성), 박부웅(최귀남), 박은숙, 박지순, 박춘자, 서정문, 송순랑, 신민아, 오택현(오원경 오원준, 오원재, 은정덕), 유은자, 윤예원, 윤정호(유목자), 이오순, 이지은, 이태일(송백현), 전순봉, 전영선, 정기성(심순옥), 정혜지, 조성호(이주하), 최상결(이미향), 최선미.

## 일천번제현금

이진우, 이필례, 김민성, 김민혁, 김청숙, 김춘화, 민옥희, 박은숙, 박희영, 배병찬, 서재희,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노율, 이미영, 이설아, 이옥남, 이인숙, 주성탁, 최봉순, 최선미, 무 명.

## 주간 성경연구

\* 주일 5장, 평일 3장씩 읽으세요. \*

### 2014년 제 36주 : 에스겔 18 - 40장

주 일	에스겔 18 - 22장		
월요일	에스겔 23 - 25장	목요일	에스겔 32 - 34장
화요일	에스겔 26 - 28장	금요일	에스겔 35 - 37장
수요일	에스겔 29 - 31장	토요일	에스겔 38 - 40장

시무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방석태 이일로 전세력 윤병호 강영성 김병율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방현우 장명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교역자	부 목사	윤희진	
	전 도 사	김성종, 이필례	
	교육 전도사	이송이, 최유경	
찬양대	지휘자	할 렐 루 야 : 김한나 시 은 : 에 덴 : 최원지	호 산 나 : 김안나 엔 젤 : 이난수
	반 주 자	오르간 : 심혜윤 피아노 : 강민주 김상훈 김미희 유광희 이주하 정혜지 클라리넷 : 박진숙 이난수 플롯 :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김혜진 고광훈 장명환 고승진	
선교사	파송 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수리남 : 안석렬 이성옥 A X 국 : 박동원 김명화	이집트 : 김신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옥
	협력 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 김총기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 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 단체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찰회 용정선교회		

2014. 8. 31. 주일 예배 설교

### 준비한 연보

본문: 고린도후서 9장 2-5절

설교 : 이진우 목사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례”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여호와 이례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모든 일에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성도를 듣는 구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도와주고 쓸 것을 나누며 함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확장시키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행하는 연보를 향에도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 1. 연보를 준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감동이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며 세상의 많은 자들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해야 하는 생명을 받은 성도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감동을 주는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혼신하여 준비하여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2) 고린도교회는 사도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힘에 넘치도록 혼신하여 현금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말로만 하지 않고 힘써 행함을 통하여 약속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바울의 권면을 듣고 고린도교회는 합심하여 준비하고 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바울이 준비한 연보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사랑의 참된 본을 보였습니다.

3) 이렇듯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행하며 사랑의 감동을 전하기 위하여 잘 준비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준비, 말씀의 준비, 혼신할 준비가 되어야 그 곳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작은 것이라도 먼저 준비하여 믿음으로 행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힘써 행하는 삶입니다. 더욱이 성도는 사랑에게 주는 것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약속한 모든 일에 온전함으로 준비하여 약속한 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 우리 하나님은 준비함이 없이는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례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창 22:14)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2)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준비된 자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령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는 성도가 전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며,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고, 사랑의 열매를 몇몇으로 신령 되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까?

3)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준비한 것 중에서 최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주님께 혼신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물질을 준비함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기 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잘 준비하여 신령 되신 예수를 맞이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잘 준비하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 3.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준비하는 생활을 합니까?

1) 한꺼번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도, 말씀도, 물질도, 삶의 현신도 착실히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는데 하루하루 매 시간 매 분초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행하며 준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는 법입니다.

2) 또한 작정을 하고 그 약속을 성실히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지켜주시고, 내가 약속을 파기하면 하나님도 파기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르티”입니다. 이 말은 “나눈다.”라는 “베카”에서 나온 단어인데 즉 한쪽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고 나뉘게 한다는 뜻으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대한 철저한 복수를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언약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언약을 깰 때 철저한 하나님의 응징이 있는 것입니다.

3)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상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여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SINCE 1975-2014

No. 40 - 36

##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현교회

##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야가 4:15]

담임 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 마길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 2689-1230
- 홈페이지 : [www.sunghyeon.or.kr](http://www.sunghyeon.or.kr)

